



‘행복한 동행’ 반려동물과 함께하시게 <20> 개를 위한 전시



나 국립미술관 초대받았어...꿈이개? 생시개?

모두를 위한 미술관, 개를 위한 미술관



‘모두를 위한 미술관, 개를 위한 미술관’ 전시 오는 25일까지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열린다. 사진은 개를 위한 공간으로 꾸민 미술관 실내의 모습. <국립현대미술관 제공>

국립현대미술관, 개관 후 첫 반려동물에 개방...25일까지 수의사·조경사 등 참여 맞춤형 공간...유튜브에 영상 공개 반려 의미 되새기고 공공장소에서의 ‘비인간’ 동행 실험

‘한글날’과 맞물려 다시 찾아온 연휴, 서울에서는 색다른 전시가 열리고 있었다. ‘개를 위한 미술관’이라니 눈으로 확인하지 않고는 쉽게 상상할 수 없는 전시였다. 때마침 뮤지컬 ‘광주’ 취재차 서울 방문 일정이 있던 터라 조금 서둘러 전시까지 관람하기로 했다.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열리고 있는 ‘모두를 위한 미술관, 개를 위한 미술관’ 전. 국립현대미술관이 개관 이후 처음으로 개에게 문을 열고 개를 위한 전시를 열었다는 점 때문에 화제가 됐다.

국내에서는 전체 가구의 30% 정도가 반려동물과 살고 있고 동물과 인간이 함께 누릴 수 있는 공간과 장소도 점차 늘어가고 있는 추세다. 이번 전시도 반려동물과의 행복한 동행을 꿈꾸는 반려인들에게는 환영받을 만한 전시로 평가되고 있다.

‘모두를 위한 미술관, 개를 위한 미술관’은 가족이라고 부르지만, 여전히 공공장소에 오기 힘든 반려동물을 미술관에 초청한다. 미술관의 관람객으로 개들을 초청하면서 현대사회에서 반려의 의미, 우리 사회에서 타자에 대한 태도, 미술관이 담보하는 공공성의 범위, 그리고 공적 공간에 대한 개념 등을 생각해 보고자 한다.

특히 개를 위한 개방과 확대의 공간을 구현하기 위해 수의사, 조경사, 건축가, 법학자 등 분야별 전문가들이 전시에 참여했다. 설계현·조광민 수의사는 동물행동 및 감정, 습성에 대한 지문을, 김수진 인천대 법학부 교수는 법률자문을, 개를 위한 건축과 조경을 위해 김정재 건축가, 유승중 조경사가 참여했고, 김은희 독립큐레이터가 스크리닝(영화) 프로그램을 기획했다.

평소 일반인들이라면 그냥 지나들던 미술관이지만 이번 전시만큼은 입장 전 ‘반려견에 인식표를 착용시켰습니까?’, ‘목줄을 2m 이내로 고정하셨습니까?’, ‘배변 봉투와 휴지를 지참하셨습니까?’, ‘광견병 예방접종을 하셨습니까?’ 등 12가지 질문이 적힌 문답표와 서류 작성이 필수다.

국립현대미술관의 이러한 새로운 실험이 신선하고 반가웠다. 1층 입구를 지나 입장권 확인을 마치고 개를 위한 전시가 열리고 있는 7관을 찾아 지하로 내려갔다.

전시에서는 참여 작가 13명(팀)의 신작 7점을 포함해 설치, 조각, 애니메이션 등 작품 20점을 볼 수 있었다.

조경가 유승중은 식물과 자연을 과감하게 전시실로 가져온 ‘모두를 위한 숲’을 비롯해 정연두의 전염병으로부터 아이들을 구한 설매건의 이야기를 다른 관점으로 제안하는 ‘토고와 발토-인류 구한 영웅권 군상’, 건축가 김정재가 개를 위해 제작한 공간 ‘가까운 미래, 남의 거실 이용방법’도 볼 수 있었다.

사진작가 권도연은 재개발 지역에서 사람들이 떠나며 버린 개들을 사진으로 찍었다. 작품 이름은 ‘북한산’. 그의 작품은 개를 위한 전시 중에서 가장 무거운 작품이다. 북한산의 개들은 인간과 함께 한 공간에 살고 있지만 사실상 함께 살지 못한다. 그는 버려지고 위협받고 내몰린 개들의 모습을 흑백사진으로 전한다.

가장 눈에 띄는 작품은 영국 작가 데이비드 슈리글리의 유머러스한 영상 ‘안녕’이다. 이 영상은 인간과 개의 관계에서 인간이 개를 훈련시키지만 하는 것이 아닌, 개가 인간을 반려인으로 훈련시킨다는 사실을 직설적으로 표현한다.

전시관 입구에 있는 야외로 통하는 문으로 나가면 미술관 마당이 펼쳐진다. 이곳에서는 반려견을 데리고 온 관람객들을 여럿 볼 수 있었다.

조각과 풀밭, 건축조미 사이를 맘껏 뛰어놀게 꾸민다면 적록색맹인 개의 시각을 고려해 노란색과 파란색 위주로 조형물을 만들었다.

적록색맹인 개의 시각을 고려해 도구를 제작한 김용관의 ‘알아줘, 나는 크고 위험하지 않아’를 비롯해 도그 어질리티(dog agility-장애물 경주)에 사용되는 가구와 비슷한 조각들을 설치했다. 실내외 전시된 가구나 집의 높이가 동물들의 눈높이에 맞춰졌다는 점도 크게 와닿았다.

지난 9월 시작한 전시는 오는 25일까지 계속된다. 전시장을 찾기 어려운 관람객들을 위해 온라인으로 전시를 감상할 수 있도록 국립현대미술관 유튜브 채널에서도 전시 영상을 공개중이다.

/서울=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우리집 반려동물을 소개합니다

애교 많고 똑똑한 까만 ‘단추’ ‘가족 바라기’ 미니어처 푸들

저희집 강아지는 올해 3살된 미니어 처푸들 단추예요. 눈이 단추같이 생겼다고 해서 이름도 단추라고 짓게 됐어요. 단추는 동네 분양소에 있던 강아지였어요. 좁은 칸막이 안에 보이는 까만 강아지가 몇 달 동안 혼자있게 계속 마음에 걸려 가족들과 상의 끝에 단추를 데리고 왔지요. 밝고 활발한 강아지가 색이 겹다는 이유로 오랫동안 가족을 만나지 못하고 있다는게 마음이 아팠어요. 저희 아빠는 닭, 돼지, 염소는 걸음수룩 인기가 많은데 강아지는 겹다고 외면받는다 것이 이해가 안된다고 하셨어요. 칸막이에 갇혀 살았던 게 트라우마가 되었는지 지금도 분리불안이 심하지만 단추는 우리가족 밖에 모르는 ‘가족 바라기’예요.

단추가 우리집에 온 뒤로 집안 분위기가 많이 밝아졌습니다. 애교도 많고 똑똑한 단추 덕분에 웃을 일이 많아졌어요. 제가 서울로 취직을 해서 광주에 자주 오지는 못하지만 집에 올 때마다 늘 밤새 반겨주고 저밖에 모르는 단추가 있어서 너무 행복하고 집에 갈 날만 기다려집니다. 앞으로도 오래도록 단추가 건강하게 우리 가족과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김지수·광주시 북구 임동)

※반려동물의 사진과 이름, 나이, 특징, 연락처 등 간단한 소개를 전자우편(yoonsarang_love@naver.com)으로 보내주세요.

SINCE 1982

각국 보청기 전문 A/S센터 상표등록 제2549335호

Beltone, CES, BIG INNOVATION AWARDS

“인터넷 검색창에 **국제보청기** 를 보세요”

국제보청기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종로 5가역 1층 02) 765-9940

순천점 중앙시장 앞 061) 752-9940

모던 슬라브옥상 칼라강판 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아파트, 빌라, 원룸, 주택, 상가건물, 대형빌딩 등(슬라브 옥상) 시공

옥상지붕공사: 슬라브 주택, 데스리 및 한옥 등은 칼라강판 지붕공사

옥상스틸방수: 갈라지고 물이 새는 옥상바닥 [겨울의 차가운 냉기] [여름의 뜨거운 열기] 방수와 단열 한번에 해결!

광주·전남 같이 하실 분 모십니다. 디자인 등록 제30-0934833호 제30-0949873호 특허청

문의 062)531-3530, H.010-9229-3530 옥상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무료견적